

성경의 맥잡기 – Chapter 12. 공동서신 및 계시록

D.P.Joshep 2010-06-07 22:57:18

조회 32 스크랩 0

히브리서의 저자는 미상입니다. 다만 글의 흐름이나 문맥으로 봤을 때 사도바울이 히브리서를 썼지만 이 서신서의 마무리를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마무리를 짓지 않나 추정할 뿐입니다. 히브리서는 유대 민족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이 당시의 상황은 네로 황제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했고 그 중 하나의 사건이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겪다 보니 하나 둘 씩 다시 유대교로 개종하려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서신서는 이런 사람들과 보수적인 유대교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유대교와 기독교를 비교함으로써 기독교의 우월성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멜기세덱이나 지성소 희생 제물 등 유대적 전통의 단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유대교에서 자랑스럽게 여기는 구약 시대의 수많은 유명한 인물들보다 기독교에서 믿는 예수님이 훨씬 더 우월하시다고 주장합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며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성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74회나 되는 구약성경에 대한 인용을 많이 사용합니다. 흔히 '믿음의 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구약에서 나오는 믿음의 의인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믿음의 의인들도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주님을 믿어 왔다고 전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혼자라는 나약한 생각은 버리고 끝까지 주 이름을 붙들며 영적 싸움을 할 것을 도전해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이며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십이었던 야고보가 12지파에게 쓴 서신서입니다. 야고보서 내용의 큰 특징은 행위를 강조하는 서신서입니다. 믿음이 진정으로 드러나고 인정 받기 위해서는 순종이나 행동과 같은 행함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나오는 믿음은 내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 드리고 순종하겠다는 고백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믿음과 순종은 양면의 동전처럼 같은 것으로 설명합니다. 심지어, 야고보서에 말씀하시는 것에서는 수신자에게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알고 있고 믿는 것은 잘한다고 하고 하지만 그만한 믿음은 마귀도 가지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마귀도 하나님이 한 분 밖에 없으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란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알고 있는 믿음은 마귀도 가지고 있기에 같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알고만 있을 뿐 행함이 없다. 오히려 반대로 행할 뿐입니다. 우리는 마귀와 반대로 그 믿음을 행동으로 행해야 하며 마귀와 다른 믿음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고 야고보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행함을 강조하기에 어떤 이들에게는 편하되기도 하는 서신서입니다. 실제로 마틴 루터 목사님은 야고보서를 '지푸라기의 서'라고 하며 폄하하였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는 유대주의 성향이 강하기에 바울서신과는 다른 긴장이 있기도 합니다. 야고보서에서의 절반이 넘는 동사들이 명령조입니다. 그만큼 격렬함 느낌과 함께 적극적인 느낌을 지니고 있는 서신서입니다.

베드로전·후서는 베드로가 쓴 유일한 성경입니다. 대상은 어느 누구에게 확실히 전해진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사역했던 모든 곳을 향해 쓴 서신서입니다. 베드로전서가 쓴 당시의 시대에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로마의 핍박이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렇기에 믿음 생활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시기입니다. 이에 대해서 베드로는 박해와 핍박으로 인해서 믿음을 잃지 않을 것을 당부하면서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에게 권면과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의 경우에는 베드로전서처럼 외부적인 문제가 아니라 교회 내부적인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였습니다. 교회 내부에 거짓교사들이 나타났고 그들이 말씀을 왜곡하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교회 내의 성도들은 혼란스러워 하였습니다. 베드로후서에서는 이들에 대한 경계를 말씀하고 계신데, 당시에 예수님에 대해서 헛갈려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예수님이 사람인 것에 대해서 부인하고 다른 이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에 대해서 믿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영지주의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은 거룩하되 영을 감싸고 있는 육은 악하다는 생각을 갖는 것이 영지주의입니다. 삶을 살면서 영만 깨끗하면 되고 육은 죄로 얼룩 되어져도 상관없기에 육신이 죄를 짓는 것을 허용하고 방치하는 사상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뜻에 어긋나는 많은 이단들이 성행하였습니다. 베드로후서에서는 이런 사람들과 대항하여 싸우고 영적 성장을 이루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이·삼서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적은 서신서입니다. 요한일서는 '사랑의 서'라 불릴 정도로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에 혹은 성도들 간에서의 참된 교제를

말씀하였고, 사랑 실천의 중요성을 구원론적인 관점에서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후미에 영지주의자와 같은 거짓교사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요한이서는 개인적인 서신서로서 마찬가지로 거짓교사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삼서도 마찬가지로 개인적인 서신서로 잘 섬기고 있는 가이오에 대해서 칭찬하며 디오드레베의 나쁜 짓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신자에게 진리안에서 행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유다서는 가장 늦게 성경으로 공인된 성서로써 예수님의 형제이면서 야고보의 동생인 유다가 쓴 서신서입니다. 유다서에서는 이단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성도들이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울 것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며 베드로후서와 유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모세의 시체를 두고 천사와 마귀가 싸운 내용과 같은 외경의 내용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신약성서의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은 요한복음의 저자이며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이 쓴 마지막 성경입니다. 로마의 박해로 인해서 '에게해'에 위치해 있는 '바토섬'에서 썼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뚜렷하게 우리가 사는 현재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말하는 예언서입니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에서 본 환상들을 써 놓은 것입니다. 그렇기에 현재에 이단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성서이면서 요한계시록에 대한 해석도 다양하기에 신중하게 읽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서는 과거에 대한 계시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쓰여 있고 2장과 3장에서는 그 당시에 있었던 일곱 교회에 대한 계시를 하였습니다. 그 시대 관점에서 보면 현재적 계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4장부터 마지막장까지 미래 있을 내용들을 계시하셨습니다. 4장부터 마지막 장까지의 요한이 본 환상의 전개는 이렇습니다. 4장과 5장에서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6장에서 7가지의 봉인이 해제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봉인이 해제되면, 그 봉인에서 일곱 개의 나팔이 나와서 각각 하나씩 불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마지막 나팔을 불면 7개의 커다란 대접이 나타나 재앙을 일으킨다.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단어 '아마겟돈'이라고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순서대로 차례대로 나오면 이해하기 쉽겠지만 미국드라마에서도 가끔씩 중간 중간에 광고가 나오듯이 다른 계시들이 등장을 하여서 읽는 사람을 헷갈리게 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대접에 의한 재앙이 일어나면 지상 공중 권세를 잡고 있던 사악한 것들이 모두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19장에서 그리스도 재림에 관한 예언을 하고 어린양의 혼인잔치의 환상이 나타납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서 특이한 것은 구약성경에서는 자주 등장했던 단어인 '할렐루야'가 신약성경으로 넘어오면서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유일하게 4번씩이나 '주를 경배합니다.'라는 뜻의 '할렐루야'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20장에서 천국에 갈 사람과 지옥에 갈 사람이 모두 정해지게 됩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모두가 지옥에 가야 하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말한 사람들은 '생명의 책'에 쓰여 저서 주의 은혜로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21장에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가 가게 될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묘사되어 있고 22장에서는 생명수의 강이 나오는 데, 성령님과 목마른 자 모두가 모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어서 오시기를 바라는 것과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하는 사람들이 빨리 돌아오기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으로 예수님이 속히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고 그 해석에 실수도 있습니다. 세대주의자의 경우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이 세대가 끝날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올 것이라는 말을 곧이 그대로 믿고 해석하기도 하며, 어떤 이들은 요한계시록 20장에 언급하는 천년 왕국에 대해서 여러 갈래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장은 '전천년설'이라 하여서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나서 천년왕국의 세상이 펼쳐질 것을 말하고 그와 반대로 '후천년설'이라 하여 천년왕국 이후에 재림이 나타날 것이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천년왕국 자체 하나의 상징으로써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많이 나오는 숫자들이 모두 상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구원 받게 될 144,000에 대한 것인데, 대부분의 이단들은 문자 그대로를 해석해서 144,000명 엔트리 안에 들어가려고 노력하기도 합니다. 144,000명에 대한 해석은 이렇습니다. 구약시대의 12지파에서 나오는 '12'와 신약시대의 12제자에서 나오는 '12'가 곱해집니다. 그리고 나머지 '1,000'의 경우는 유대인들에게는 그 숫자는 엄청 많음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곱해져서 144,000명이 나오는 것이고 이것을 해석해보면 구약시대와 신약시대 등 모든 시대에서의 주를 믿는 많은 사람들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어느 해석이 완전히 맞는 해석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아실뿐입니다. 우리는 말씀에 대해서 판단하려는 마음으로 읽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

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에 대해 귀 기울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